



21세기 인문학

신과 우주와 인간



김범숙
지음

EMC 무학과

신과 우주와 인간



1.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2. 21세기와 새복음
3. 가까워진 천국
4. 신과 우주와 인간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6.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7.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8.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9. 이상한 나라의 지구
10. 특별한 시대를 살며
11. 밀빠진 그릇이었나

김병숙
저
음

신과 우주와 인간

출간일 2016년 8월 16일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94

휴먼시아 1단지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E-Mail jesusufo2@gmail.com

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

homepage jesu-ufo.com

© 무화과 2014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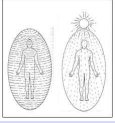
ISBN:979-11-87209-43-0



아버이 신은 지구를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바, 감정의 차원으로 들어와서 신성한 사랑을 표현하는 영혼은 천만배로 성장할 것이다....미카엘 대천사

지금까지는 자아발견과 추구의 시대였지만 이제부터는 자기극복과 완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상승 대사(大師)들

자아 속에서 평화를 얻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지구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그리스도 사난다



< 서문 >

우리 지구는 이미 4차원 에너지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사실은 5차원 에너지인 광자대(光子帶) 안에 들어와 있지만 홀로그래피적 보호막 안에 있기 때문에 4차원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은 오래 전에 그리스도 사난다님이 이미 알려준 사실이다.

4차원 혹은 5차원 에너지란 한 행성이 지닌 자기장의 주파수를 뜻하는 것인 동시에 그 행성에 기생해서 사는 동식물과 인간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요즘은 반려동물이나 기타 자연적 동물의 생태를 다루는 프로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놀라운 지능을 나타내는 동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변화도 지구가 4차원 에너지의 행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이대로의 답보상태에 머물러도 좋을까?

지구의 과학도 4차원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컴퓨터나 그 주변 산업의 발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4차원 인간으로서 인류가 알아야 할 인간 자신의 진화적 전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다는 것은 필수적 지식이다.

인간이 진화하는 단계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간단한 도표를 만들면 아래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유인원	영장류	인간	과학적 인간	영적인간	투명인간	창조하는 인간

유인원과 영장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3차원 인간인 우리 자신에서부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아직 다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3차원 인간--

형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데, 영장류와 다른 점은 감성과 감정을 지닌 동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영장류는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인간은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희노애락을 느낀다. 그러나 그 희노애락이 육체가 아닌 정신적 작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간 자신을 육체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4차원 인간--

4차원 인간은 3차원 인간이 개발하기 시작한 이성(理性)이 활짝 꽃피워지면서 인간 자신을 정신적 존재로 인식하는 단계다. 그 결과 학문도 과학도 발전시켰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에서는 아직 동물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또 이성적,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만 이기적인 동물적 본능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는 분쟁과 혼란이 죽끓듯 하는 게 4차원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이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존감과 자부심이 약이 되지만 그것이 사회적 질서에는 마찰과 대립심과 분쟁을 야기시키는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무기를 만들어 대량살상이라는 전쟁행위를 서슴치 않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위한 또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을 것이다. 정신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의 진화가 필요한 것이다.

5차원의 영적 인간--

종교를 통해서 '영적'이란 단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실질적 상태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3차원 인간은 정말 알 수 없고, 그러나 4차원 인간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영적'이란 단어다. 과학 중에서도 전자기학과 인체학이 발달하면서 그 둘 사이의 연관성도 발견하게 된 것이 분자 생물학이다. 분자 생물학은 육체를 이루는 기본입자인 DNA가 전하를 띤 소립자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자 생물학은 인간의 육체와 행성적 육체 사이에 뿔래야 뿔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육체도 행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자기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도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도 폭이 넓어지는 사이에 인간의 두뇌는 용량이 커지고, 사물에 대한 인식도가 넓어지고, 타인과의 거리도 점점 가까이 느껴지게 되었을 것이다. 두뇌의 용량이 커짐과 동시에 세포에서 차지하는 DNA의 용량도 커지면서 그것이 발생시키는 에너지인 오라(Aura)의 범위도 넓어졌을 것이다. 그 결과 타인과 타인이 만났을 때 3차원 인간들과 같은 거리감이 사라질 것이다. 5차원 인간들의 오라는 육체로부터 15m 까지도 퍼진다고 한다. 그 에너지적 범위 안에서는 타인이 아니라 같은 에너지를 공유하는 동료로 느껴지지 않겠는가?

생각과 마음도 두뇌의 소립자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에너지적 현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 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6차원의 천사적 인간--

4차원에서는 인간 자신을 정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그 결과 과학도 발전시킨 똑똑한 인간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똑똑한 것만으로는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 인간으로의 진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적 인간으로의 진화도 과학이 없었으면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행성이 지닌 전자기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전자기성, 다시 말해서 고진동의 에너지에 인간의 육체가 적응할 수 있을 때 인간 자신과 사물에 대한 이해도 폭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5차원 인간들은 한 단계 더 진화할 필요성을 만났을 것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의 관계는 가까워졌지만 우주라는 거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천문학 지식이 필요했고, 천문학 중에서도 태양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 결과 태양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터득한 존재들이 6차원 인간일 것이다. 히브리 신화서에서는 6차원 인간을 ‘육체가 없는’ 천사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탄소물질로 된 육체가 아니고 에테르라는

고진동의 우주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5차원 인간은 반(半) 에테르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완전한 에테르 육체를 지닌 6차원 인간들은 3차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천사들이라고 묘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똑 같이 생겼고 똑 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했다. 집단의식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물질적 육체를 완전히 졸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천사들인 것이다. 또 그렇게 육체와 개체인간으로서의 존재를 포기하고 집단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태양의 강력한 에너지가 지배하는 우주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7차원의 창조자 인간--

7차원까지 자신을 진화시킨 존재들에게 인간이라는 호칭은 적당하지 않고 또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7차원 이상으로도 자신을 진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느님의 형상을 본떠’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의 자녀’라는 위치에 놓고 보자는 것이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죄인취급만 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신의 자녀’임도 분명 인정했기 때문이다.

6차원 천사의 수준으로까지 자신을 진화시킨 ‘인간’의 조상과 대선배님들은 마침내 태양도 지배할 수 있는 과학적 영적 지식을 개발했고, 그 지식과 그 능력이 창조성을 지녔다는 사실도 발견했을 것이다. 자질구레한 창조행위가 아니라 태양과 행성들도 집단의식에 의해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현재 우리 지구는 행성적으로나 인간들의 진화 수준으로나 3차원과 4차원이 겹쳐진 상태라고 한다. 뉴에이지 메시지에서 자주 만나는 이야기는 지구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고진동의 행성으로 체질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 지구에 기생해서 사는 모든 생명체들도 영향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들의 경우에는 타인과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상호이해와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행위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구와 지구인이 함께 5차원으로 상승되었을 때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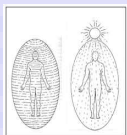
이다.

이런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고전적 종교들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또 고대 인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전적 경전들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된다는 것이 ‘뉴에이지’의 골자인 것이다.

2015년 1월

저자 김병숙

(사용된 인용문과 조각그림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 후에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차례 >

1부 자기극복과 상위자아

1. '의식'과 우주와 인간...../17
2.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
3. 의식과의 만남과 '인식'의 결단
4.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
5. 허상으로서의 자아...../32
6. 진화하는 영혼
7.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8. 거지에서 깨어난 왕자의 신분
9. 영혼은 두뇌에만 있지 않다.../47
10. 서당개 3년에 풍월 읊는다
11. 밀빠진 독에 물붓기
12. 밀빠진 독에서도 콩나물은 자란다
13.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다...../59
14. 동양의 실낙원 이야기
15. 인체학 차크라와 상위자아
16. '영적인간'의 실질적 의미
17. 본질의 세계와 현상적 세계...../73
18. 태양계 법정으로부터의 메시지
19. 조건없는 사랑이란 어떤 뜻일까?
20. 사각형과 원 사이에 낀 인간
21. 당신도 선각자입니다...../84
22. 낡은 생각과 내면적 변화
23. 5차원적 자아의식
24. DNA와 영적 안테나
25. 지금은 선택해야 할 때...../95
26. 명상과 '상위자아'
27. 자아와 완전한 자아
28. 행성적 자아와 그 색깔...../105
29. 이해하기 어려운 행간의 의미들
30. '유일신'과 '근원의 아버지'
31. 저스틴이라는 이름
32. '이미 받은 줄 알라.'...../118
33. 카인과 아벨 이야기
34. 인간과 신성의 바다
35. 태양계의 만형, 목성의 에너지
36. 절제/속박 자유/방자함...../129
37. 주관과/객관, 인간자아/우주적 자아
38. 우주인 예수의 긍정론
39. 21세기 좌우명
40. 끌려가는 삶과 주도하는 삶..../140
41. 하느님에 관한 지식이 온 세상에
42. '나 자신밖엔 믿을 수가 없구나!'
43. '신과의 직접적 연결'과 묵상/명상
44. 자아는 인간의 주성이다...../152
45. 신의 자녀와 '신의 인형'의 차이
46.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47. 어린아이와 악당, 순수와 과학
48. 이데아와 양자철학...../167
49. 육체의 길과 영혼의 길
50. 색즉시공과 멍때리기

51.의심 불신에서 확신으로

52.신성과 인간...../181

< 2부 종교와 인문학 >

1.이기심을 분석해 보면...../287

2.종교와 인문학의 차이

3.21세기 인문학

4.내 인생이 낯설게만 느껴질 때

5.사도 바울의 고민, 21세기 고민..199

6.행성 태아의 유전자 치료

7.직관과 예술

8.퇴마의식과 소월의 시

9.진리란 무엇인가?...../212

10.우리는 왜 평화롭지 못한가?

11.꿈을 잃은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

12.미국식 민주주의, 우주의 분리주의

13.수동과 능동 사이에서...../226

14.인터스텔라와 토성

15.신앙과 철학과 명상

16.빛의 우주와 물질우주

17.지옥, 연옥, 천국...../242

18.'신과 나눈 이야기'

19.체험과 영혼의 성장

20.종교와 과학의 어깨동무

21.감성적/감정적 깨달음...../258

22.동양철학과 서양철학

23.육체적 배부름과 정신적 배고픔

24.악마라는 단어와 '신성한 간섭'

25.미국 기독교가 알아야 할 점.....269

26.빛과 어두움의 대칭적 의미

27.은하의 역사와 연결된 지구의 역사

28.플라톤의 수염과 알키메데스의 점

29.우주시대와 온고지신...../283

30.인간의 삶과 하느님의 불꽃

31.자아와 신성을 가르친 선조들

32.종교와 도덕과 예술

33.자유도 책임을 요구한다...../302

34.루소의 교육철학과 미래시민

35.꽃들도 영혼으로 산다.

36.갑질을 예방했던 사투루누스신

37.니체 철학과 21세기 지구...../313

38.SF 영화들과 '100개의 진열장'

39.육체적 눈뜸과 고전적 가치

40.칸 영화제와 갈대, 그리고 다프네

41.열정/야만, 쓰레기통/장미꽃.../326

42.유교적 신관과 우주적 신관

43.종교는 양날의 칼이다.

44.종교심리의 두 가지 효과

45.자아의식과 자유의지...../338

46.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47.Iamness와 조건없는 사랑

48.생명의 재주꾼 유전자

49.영적, 정신적 과학과 가벼운 명에

50.어린이와 사고 조절자...../357

51.앙크 십자가와 이집트 신화

52.화성의 동성애자들

53.단테 신곡과 코메디

54.불사조 지구 여성들의 조상

55.끝맺음의 글...../381



< 1 > '의식'과 우주와 인간

어떤 우주인은 전체 광우주의 몸체를 인간의 육체와 같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에 기생해서 사는 세균과 같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말은 전체 광우주와 인간을 그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기 위함은 아니다. 전체 광우주가 하나의 '의식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주인은 '의식'이다. 육체는 의식에 따라 움직이고 의식적 건강의 척도에 따라 육체적 건강도 좌우되는 것이다. 의식의 뜻에 따라 팔다리의 움직임이나 모든 행위, 일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적 인간은 자신의 존재적 주인인 '의식'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거나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우주를 인간의 육체에 비유한 우주인의 발상으로 돌아가 보자. 전체 우주에는 수 조(兆)개에 달하는 은하들이 있다고 한다. '유랜시아서'에서는 전체 광우주가 7개의 대우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대우주 안에는 약 10만에 달하는 소우주들이 있다고 했다. 우리 우주는 그 10만 소우주들 중의 하나이고, 각 소우주는 100개의 인간거주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7개의 대우주는 인간 육체의 4지(팔다리)나 오장육부에 해당되고, 소우주는 오장육부를 이루는 조직들에 해당되고, 각 은하들은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집단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은하에 수억에 달하는 태양계가 있고 인간은 그 많은 태양계들 중에서도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으니 인간을 세균에 비유한 그 우주인의 수학적 상상력이

지나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전체 우주를 하나의 인간에 비유한 목적이 우주가 인간처럼 ‘의식’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로 돌아가 보자. 인간의 그 복잡한 육체적 조직들을 컨트롤하고 움직이고 사용하는 존재가 의식이듯이, 우주적 ‘의식’도 우주적 존재성의 주인적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지구의 천문학은 거대한 우주의 분포상황이 거품구조라는 형태를 유지하며 분포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블랙에너지’라는 미지의 에너지 분포와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다. 다시 말해서 아직 정체를 알수 없는 그 블랙에너지가 있는 곳에 별들도 몰려서 있는 것이다.

우주가 거대한 ‘의식체’라면 별들이 모인 곳에 우주의 ‘의식’도 몰려 있는 것 아닐까? 즉 정체를 알 수 없는 ‘블랙에너지’는 우주의 ‘의식체’가 남긴 홀로그램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우주의 거대한 의식체를 뉴에이지 문서들에서는 ‘우주의식’ 혹은 ‘우주적 자아’, 유일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의식체가 우주 만물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수동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도적 의식이 나타나 변화시키거나 조종해서 ‘창조작업’을 하기 까지는 그대로 제자리에 머무는 의식체인 것이다.

그러면 모든 별들을 묶어주는 연결적 끈이 ‘사랑’이라고 한 사난다님의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

우주의 거대한 ‘의식체’는 수동적 상태에 있고 그것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이 개별적 의식체, 즉 인간의 의식인 것이다. 3차원 인간이 기지고 있는 그런 미약하고 무력한 의식이 아니라 개인적 의식을 통해 전체적 의식인 ‘우주의식’에 연결된 ‘그리스도 의식’, 혹은 ‘참자아’ 의식인 것이다.

명상이나 혹은 과학적 도움에 의해 ‘우주적 의식’에 연결된 개별적 의식은 창조행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해도 그 상태가 개별적 활동에 지나지 않을 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그칠 것이다. 그러나 창조력을 지닌 개별적 의식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를 이루면 태양도 지배할 수 있는 우주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정도의 진화에 그치지 않고 집단의식의 범위와 강도가 커질수록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 까지도 집단의식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이 별과 별들을 묶어주는 연결적 끈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이다.

저진화 상태의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와 욕망에서 헤어날 수 없지만 진화한 인간일수록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전체적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개인에게나 사회에게나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집단과 사회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도 배워갈 것이다. 개인적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오는 기쁨과 집단적 필요성이 충족되었을 때 느껴지는 기쁨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후자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영혼들이 진화중 인간들이 되는 것이다.

한 작은 집단적 영혼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에너지가 태양을 지배할 수 있다면 보다 큰 집단적 에너지의 힘은 하나의 별자리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힘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집단적 에너지는 개인적 욕구보다 집단적 욕구가 빚어내는 힘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영혼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별과 별들을 묶어주는 집단적 에너지의 성격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나’라는 개인적 혹은 개체적 욕구나 욕망의 범주를 뛰어넘고 초월했는데, 나와 너를 분별하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뭉쳐 같은 목표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 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는 말 외에 어떤 다른 단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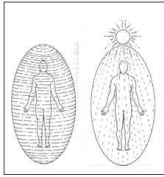
그렇다면 ‘사랑’이란 일차적으로 ‘나’라는 개체의식이나 개체적 욕망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요점은 우선 개체의 식인 ‘나’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적 진화의 첫걸음도 바로 그 개체의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의 ‘흑의 집단’에서는 왜 진화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일까? 우주적 진화론은 전체주의에 해당되고 진화를 거부하는 집단의 논

리는 개체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식과 개체의식에 충실하며 사는 3차원 세계는 그 개인과 개체의식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부딪치고 전쟁에까지 이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같은 불행들이 도처에 난무하는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인 진화의 발걸음을 택하느냐 아니면 진화를 거부하고 현재에 만족하느냐는 각 영혼의 연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어린 영혼들은 진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지만, 3차원 행성에 환생을 반복한 나이 많은 영혼들은 3차원을 졸업하고픈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3차원 세계에 반복적으로 환생하면서 지겹게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지구 사회가 처한 기로의 문제가 바로 진화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3차원 세계, 혹은 개인주의와 개체의식의 세계에 머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주의와 개체의식은 '나'와 가까운 이웃 이상을 볼 수 없지만 진화를 원하고 그것이 '의식'과 '인식'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영혼들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인 문제 혹은 행성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런 영혼들이 많은 사회가 발전하고 진화할 가능성이 많은 사회일 것이다.



< 2 >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

주제, 테마라는 단어들은 그 문맥의 혹은 스토리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주제나 테마를 모른다면 그 문맥이나 스토리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가 사도 바울의 '구원론'의 주제였고 따라서 선교활동의 주제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중심을 이루게 된 원죄론과 대속론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라...새것이 되었도다'라는 주제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죄론과 대속론만 강조되어 가르쳐진 것이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새 인간이 되고 개과천선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전히 새 인간이 되지 못했고 개과천선했지 못했다는 뜻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강조했던 것이다. 거듭남이란 단어의 뜻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것이다.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싶어 몰래 '이단자' 취급을 받던 젊은 선생을 찾아갔으니 말이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했다. 사람이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질문해야 할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 ‘거듭남’인 것이다. 그러나 분명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을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든 아니면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든 그 모든 자화상은 진짜 그 자신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자라는 동안에 외부로부터 주어진 대우나 대접에 의해 만들어진 피동적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그 가짜 자신의 모습이 곧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수많은 문제와 괴로움에 부딪치며 사는 것이다.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똑 같이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전자는 교만해지기 쉽고 후자는 열등감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인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이고 동양의 종교에서 말하는 ‘참자아’인 것이다. 그리고 뉴에이지 메시지들이 강조하는 ‘Iamness-I am that I am’이다.

기독교인들은 ‘I am that I am’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를 하느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별레 같은 인간이 그 선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위와 같이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도 바울의 원죄론과 대속론의 영향이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보충적 논리가 아니라 주제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는 주제이고 원죄론과 대속론은 보충적 논리인 것이다.

‘Iamness’, ‘참자아’는 인간적 정체성의 본질적 바탕이다. 창세기적 설명에

의하면 ‘하느님의 형상을 본떠’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고, 과학적으로 풀이하면 5차원 유전자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5차원 세계의 인간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3차원 인간들은 그 엄청난 사실을 이해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Iamness’와 ‘참자아’의 인지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자.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번역 소개된 ‘정신력의 기적’이란 책이 있었다. 미국의 단 카스터라는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정체성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가를 피력한 내용이다.

그는 열등감이 심해서 길을 갈 때도 뒷골목만 찾아 걸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 심리학자를 만나 자기최면술적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나는 열등하다’가 아니라 ‘내 안에 신이 계신다’를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의 과정이 필요한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고, 신 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Iamness’나 ‘참자아’를 찾아가는 과정도 똑 같다고 생각한다. 목상을 통해서 혹은 명상을 통해서 인간 정체성의 본질을 찾아갈 때도 먼저 자기 정체성의 껍데기 부분에 자리잡고 있는 피동적이고, 일그러졌고, 상처 투성이인 자화상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던져버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용서의 과정인 것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는 ‘나는 신이다’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나를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바로 그 정도의 존재라는 뜻이다. 하느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하느님의 의지(意志)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만물은 존재 이전에 존재적 원리가 먼저 있었는데 그것이 곧 신의 의지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성도 존재의 원리, 의지, 인지, 인식이 먼저 앞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Iamness--I am that I am’이고 ‘참자아’인 것이다.

창세기에서 말하듯이 내가 신의 형상을 본떠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

하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신이 내 안에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거나 불가능하겠는가?.....

문제는 이대로 의존형의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신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깨달아 가질 것인가의 선택일 것이다. ‘십자가 대속론’에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사랑’과 선행을 강조한다. 그것이 천국행 티켓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과 선행은 개인을 위한 천국행 티켓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뉴에이지 메시지의 골자는 천국이 죽은 후에나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서 지구에도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지성은 그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 천국건설을 위해서는 십자가 대속론을 믿는 의존형의 인간이 아니라 ‘나는 신의 자녀다’라고 믿고 인지하는 성숙한 인격이 필요한 것이다.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곧 신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천국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산 자들의 세상이다,라는 말이 성서에는 있다. 죽은 후에나 가는 영혼들의 세상이 아니라 산 사람들이 사는 실질적 세상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거대한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듯이,** 지구인 대다수를 희생시키며 오실 것이고, 그러나 나 개인은 구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는가? 아니면 ‘신의 자녀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부조리들이 개선되고, 그 결과 천국을 건설한 후에 기쁜 마음으로 재림예수를 맞이할 것인가?

그 분은 분명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구에 재림할 것이다. 심판자가 아니면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 구원으로 만족한다면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행성적 구원을 위해 공동체 구성에 힘쓰다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 3 > '의식'과의 만남과 '인식'의 결단

우리 지구와 같이 탄소가 주 원소로 이루어진 세계는 우주에서도 가장 낮은 차원의 세계라고 한다. 우주인들은 '차원'의 차이가 그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의 진동률에 따라 고차원과 저차원으로 나뉜다고 했다. 탄소는 진동률이 낮지만 에테르는 진동률이 높기 때문에 에테르가 주성분인 5차원 세계는 3차원인 지구보다 높은 차원인 것이다. 진동률이 가장 높은 차원은 곧 빛의 세계이고, 그래서 **빛은 곧 신(神)이다**, 라는 말도 있다. 그리고 빛의 진동률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진화시킨 결과 빛과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우주인들도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시리우스인, 안드로메다인, 아크투루스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육체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이 진화한다는 것은 것처럼 진동률이 다른 보다 고차원의 세계에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를 개조해 나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형되어 가는 육체적 진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70%에 이르는 수분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복잡한 구조로 인해 몸집이 불어난 세포핵, 즉 DNA가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5차원 우주인들은 12가닥 6쌍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5차원의 DNA는 그 두뇌세포의 인식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두엽이 발달한 큰 용량의 두뇌가 되고, 그 결과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입체화되어 물체의 내면과 그 너머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5차원적 유전자의 세계는 거의 '완전한 앎'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우주를 지배하는 태양들과 빛의 속성이 무언인가를 알았고 또 '창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도 훤히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즉 우주에서의 생과 사를 판가름하는 태양들의 힘을 제압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떤 육체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완전히 졸업했으면서도 '의식적'으로는 살아있는 '신령체'의 존재들이 된 것이다.

우리 지구인들이 이룩한 물질과학 분야에서는 양자역학이 그 첨단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에 따라 만물의 기본입자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입자의 파동적인 성질에 변화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겨우 알게 된 3차원 인간의 두뇌와 집중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필요로하는 사물을 제작해 낼 수 있는 5차원의 두뇌는 그 기능과 지배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다. 게다가 태양의 저 강력한 힘과 열과 빛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야말로 '신의 권능'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는가?

현재 우리 지구와 지구사회는 4-5차원으로서의 차원전환과 '승격'이라는 운명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과학은 분명 4차원에 도달했지만 인류의 '의식'차원에서는 아직 3차원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아이로니하게도 인류의 의식적 차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종교인 것이다. 종교란 원래 인간의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도 말이다.

인간의 의식적 발달은 두뇌의 용량적 변화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이런 사실에 종교인들의 이해가 빠르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부분 종교가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가르쳤기 때문이다. 또 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가르쳐도 이해할 수준이 못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가르쳤던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물질을 지배할 수 있고 신성으로 통하는 고속도로나 다름없기 때문에 '의식'의 형제나 다름없는 '인식'이 이 시대의 또 다른 화두가 될 수 있다.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사난다는 이렇게 말한다.

2천년 전의 유대교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나?'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 경전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내가 2천년 전에 준 계명의 진실은 인간이 육체를 지녔지만 그 안에 내재하는 그리스도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성을 발현하라. 나는 신의 개체화이고 여러분도 신의 개체화인 것이다. 여러분과 나의 차이는 나는 내 안의 그리스도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1)

즉 인식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의식'과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스도 사난다님이 언급한 몇 구절을 더 찾아보자.

오늘날 인류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발전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2천년 전에 주었던 것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신의 완전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완전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와 상대성, 죽을 운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재의 의식상태를 초월해야만 한다.2)

여러분은 오직 직접적이고 내면적인 길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심각한 맹목적 숭배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참된 메시지 대부분을 제거해 버렸다.....나는 어떤 인간도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내면적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영지(靈智)

1) 이하 모두 은하문명 간 '예수그리스도의 충격메시지'에서 인용.

2) 초월을 위해 필요한 것이 명상이다.

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왔었다. 이것이 내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왔었다. 그러나 나를 특별 취급한 잘못된 가르침들은 오히려 전보다 사람들을 더욱 부자유 속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떤 물리적 감옥보다 더 튼튼한 정신적 감옥 속에 그들을 가두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4 >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

요즘 언론에는 끔찍한 가해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군대라는 집단에서 그리고 가출한 청소년들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 이하의 가학적 행위들은 국민 누구나를 경악케 만들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인간 세상이란 원래 그렇게 부조리하고 악한 곳이야. 그래서 나는 부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으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거야....

그런 점에서 확실히 종교는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해야 옳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한다면 군대나 청소년들의 가학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회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는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 같은 영상물들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거칠게 만든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폭력적 영상물들이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영상물 제작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지나친 자유민주주의나 경제 제일주의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지구에는 여러 훌륭한 종교들이 주어져서 열심히 가르친 결과 지구 대다수 주민들이 적어도 선과 악의 개념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유대교 발상지인 이스라엘, 즉 과거의 가나안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원시 숭배의식이 있었다고 구약성서는 말한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런 행위가 악한 행위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다. 이 시대의 사난다님도 모든 악의 근원은 무지(無知)에 있다고 말한다.

사실 무지는 선(善)에 반대되는 요소다. 무지는 신으로부터 그리고 빛으로부터 분리된 환영을 만들어내고,.....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과 권력의 욕구를 낳고, 악에 관한 모든 요소와 변장을 낳는 것이다.¹⁾

무지는 불안감의 온상이고, 불안감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무지’의 본성인 것이다. 그러면 완전한 선(善)의 세계라고 하는 본질의 세계, 즉 5차원 행성에서는 어떻게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아마도 ‘완전한 앎’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완전한 앎이란 인(因)과 과(果)의 논리에서 원인자가 되는 신성의 세계를 이해하게 됨을 의미할 것이다. 완전한 ‘앎’인 신성 속에 무슨 불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무슨 욕구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악은 근절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종교(宗敎)라는 단어는 오래된 가르침이란 뜻이다. 지구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종교들이 주어졌지만 약육강식과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왔다. 가르침은 주어졌으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만큼 이성과 지성이 발달하지 못한 인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21세기 인류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성장했고 과학은 이성과 지성에 날개를 달아줄 정도로 발달해서 우주를 내다보며 그것을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난다님은 아래와 같은 말로 종교들도 오랜 잠에서 깨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곳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을 가진 대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들도 모두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웃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제끼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의 무지했던 농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학은 여러

1) 은하문명 간 ‘천상의 가르침과 대예언’에서 인용.

분을 저 광활한 우주의 언저리로 데려왔습니다. 하느님은 거기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종교적 가르침들 속에는 지구 저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들에 대한 인식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 인류가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인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배움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우주를 만들고 제자리에 유지시키는 실제적인 에너지 또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자구(字句) 하나하나에 매달려 그 해석을 가지고 논한다면 여러분은 하느님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은 대부분 쓸모없으며, 성서에 관한 논쟁은 에너지의 낭비일 뿐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활화하십시오....나를 신학이 만들어 놓은 고정된 권위의 자리에 놓는다면 여러분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고 아울러 성장해온 존재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십시오.....²⁾

2) 은하문명 간 '예수그리스도의 충격 메시지'에서 인용.



< 5 > 허상으로서의 자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듯이 명상은 아무나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다. 생업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든가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한가하게 앉아 명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명상을 할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봄이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 위해 눈을 감고 앉아도 잠이 먼저 그를 점령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마음을 거울 같이 가져야 한다는 불교적 충언이 만들어진 것이다.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은 경제적 여건이 호전될 수도 있고 암 선고를 받은 사람도 명의를 만나 병을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은 그렇게 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치료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조차 모른 채 습관적 우울증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 우울증이 최근에 어떤 심적 상처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가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그 지나간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분석하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석하고 판단한 후에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배운 것으로 위로삼고, 없었던 일로 치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과 판단력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최면요법을 써서 환자가 과거로 돌아가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깨닫게 한다고 한다. 필자도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필자의 경우는 사춘기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를 기억할 수 있었다.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던

중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문구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무시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를 무시한다, 는 것이다.

그 문구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왜 나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게 되었는가를 되돌아보자는 것이었다. 내가 낙담하고 자책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느끼게 된 것은 학창시절의 한 사건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회상하며, 그때 그 사건으로 돌아가 잘잘못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학구열이 강했으나 너무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아 겨우 학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학엘 들어가려면 전국의 뛰어난 실력자들을 제치고 장학금을 따야 하는데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는 학구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선생님들의 결근률이 높아서 하루에 한 시간은 꼭 자습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면 급우들은 유행가를 부르거나 떠들며 공부 하려는 학생들을 훼방놓기 일쑤였다. 교사들의 결석률이 높으니 교과를 다 떼지 못한 채 학년을 넘기는 과목도 수두룩 했다. 학교 복도에는 다행히도 학교 당국에 원하는 바가 있으면 의견을 써서 내라는 우편함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순진한 마음에 의견서를 써서 냈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교장실로 불려가 귀중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으로부터도 복수의 화살을 받아야 했다.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 친절을 베풀자는 뜻에서였겠지만, 담임선생님은 도내 일제고사 때 시험지 일부를 미리 공개해서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어준 적이 있었다. 그건 분명히 부정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 투서의 내용에서 빠질 수 없었다.

담임선생님은 필자를 특별히 아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배반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순진한 마음에 옳고 그른 것은 따져야 한다는 객기를 부렸던 것 같다. 배신감을 느낀 담임선생님 왈, 여자가 시집가서 살림 잘하면 댕지 대통령이 될 거냐 아니면 장관이 될 거냐.....요는 네가 요구한 학구적 분위기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 개인을 위한 요구지 전체학생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요구조건이라는 것이었다.

초등학교부터 내내 모범생이요 우등생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자란 필자에게

처음 들이닥친 비난과 질책의 화살이었다. 선생님 말씀이 모두 옳은 것 같았다. 빈 달구지가 요란하다느니, 곡식은 영글면 고개를 숙인다느니, 못난 송아지가 엉덩이에 뽀난다느니....자신의 부정행위가 들어난 데 대한 보복으로 마구 쏟아낸 담임선생님의 비난의 화살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당한 아픔이었다. 그 충격에 더해서 초등학교 때의 사건이 떠올랐다. 학교 매점에서 연필 한 자루를 몰래 훔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잊고 살았는데, 잊었던 사건까지 떠올리며 나 자신을 비난하고 학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모범생도 우등생도 아니라는 사실이 절벽처럼 다가왔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서 있던 발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한 후로는 자책과 후회심이 나를 굴복시켰다. 검정고시를 통해서라도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고 모범생이요 우등생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었지만 친척집을 전전하며 식모처럼 살아야 했던 세월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리 없었다. 아니 무엇보다 나 스스로 나를 비난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가 머리에 들어올 수 없었다. 연애다운 연애도 못해보고 짝사랑으로 끝나자 자살을 시도하고, 결혼생활도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내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문제의 발단이었던 과거로 돌아가 보니, 그 사건은 나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 학교 당국의 잘못이라는 긍정적 판단도 하기에 이르렀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우울증은 남아 있었다. 약을 먹고 병증은 사라졌지만 육체가 그 병에 대한 항체는 만들지 못한 상태와 같았다. 그때부터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종교가 내 마음과 정신에 항체를 길러줬다고 생각한다. 타인을 용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면, 내가 나 자신에게 완벽한 인간이기를 바라는 것도 일종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도 종교였다.

용서는 그것을 마음에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길에다 버리듯 내다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도 여전히 우울증은 남아 있었다. 성경에는 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가 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 살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옛집이 그리워 다시 와보니 집이 깨

곳이 청소되어 있었다고 한다. 귀신은 집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여러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깨끗이 청소되었던 그 사람의 영혼이 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울증을 완전히 정복하려면 귀신이 나가 깨끗해진 집을 새것으로 채워야 한다. 필자는 그 새것을 새시대의 복음에서 찾았다. 20년 가깝게 교회에 나갔지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뉴에이지라는 이름으로 필자에게 다가온 새 복음은 뜬구름 같은 형이상학적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는 현실적 복음이었다. 나는 명상을 통해서 실존적 구원에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다. 아직은 잡다한 일상의 문제들이 명상을 방해하고 있지만, 연습에 연습을 더하면 인성과 신성 사이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날도 올 것이라고 희망한다. 그것이 내 우울증에 대한 유일한 항체임을 나날이 느끼며 산다.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